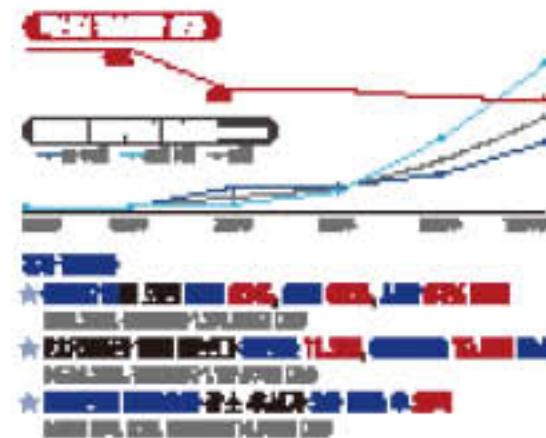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문

3차 접종은 왜 맞아야 하나요?

- 2차 접종 후
사진이 확산될 때마다
백신 효과는 감소하고
접종을 더 해야 합니다.



- 3차 접종의
**목적은 감염 예방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나요?

- 1회 미약한 부작용은 2주 ~ 3주 후에 사라지며
“인체에서 면역력이 향상됨, 면역력이 높아져 감염되는 위험성이 낮아짐”
- www.kdca.g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접종 예약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노인이나 관리약자를 접수하는 경우면 접종 예약 및 접종 가능
- **면역증명서**는 접종 후 2주 ~ 3주 후에 발급됩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 코로나19 백신은 4주에 걸쳐 외부 솔루션과 함께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접종된 10억 명 이상입니다.
- 3차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입니다. 그 외
마약은 금지됨, 접종 후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접종 후 1주 ~ 3주 또는 접종 1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양in 행복人

고양소식

GOYANG
CITY
MAGAZINE

2022
JANUARY

01

VOL.347



CONTENTS

04 새해인사
고양시장·고양시의회 의장

06 고양 둘보기 1
고양 화랑 청년인턴

08 고양 둘보기 2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고양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 관광사진 및 영상 콘텐츠 두수상 수상작 '아지트교(진석)

행주대교(幸州大橋)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한강의 다리로, 행주대교 남단은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의 기종점이기도 하다. 다리 북쪽의 덕양산에 행주산성이 있다. 자전거 등호인들이 한강을 달리다 행주대교를 건너 행주산성 근방에서 국수를 먹고 오는 것을 하나의 코스로 하는 경우 가 많아서 행주대교 북단에서부터 행주산성 주변에서 자전거 등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Contents

2022 January vol.347



꿈꾸는 고양

- 04 새해인사 고양시장·고양시의회 의장
- 06 고양돌보기 1 고양초등 청년인턴
- 08 고양돌보기 2 고양시주거복지센터
- 10 시정ZOOM IN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 12 시정ZOOM IN 2 출산기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4 시정ZOOM IN 3 고양시도서묘약서비스

함께하는 고양

- 16 역사 산책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황지
- 18 가볼 만한 고양 DMZ 평화의 길–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 20 고양시민터뷰 아름솟대갤러리 김숙경 작가
- 22 우리 동네 이야기
- 24 실버라이프 - 일산3동 주민자치회 윤기남 회장 -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세대 대담 노하우
- 28 아동·청소년 정보 청소년문화아카데미

소통하는 고양

- 30 안권작품공모전 수상작 수필 분야 장려상
- 32 베과사전 키워드로 전망하는 2022년 트렌드
- 34 시정·유관기관 정보
- 38 도서관 정보
- 40 의정소식 / 건강상식
- 42 카툰 -대형드론비행장 개장 -1월부터 축수산물 학군제 기준 강화
- 44 고양시 유튜브 핫클립(Hot Clip)
- 46 고양 사랑방 / 문예마당
- 48 독자 이벤트

Cover Story

1월호 표지는 임인년을 맞아 용맹한 흑룡이 고개를 암에 꿈기도 하며번비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의 홍보 어플인 고양부부가구 등의 생활·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산기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 → 놀무쁜고양 → 시정소식지 →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팩스 031-8075-4904 이메일 gysoko@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훈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 주무관 윤정호 편집위원 김고현 / 김은정 / 노정민 / 모문석 / 윤재민 / 이경현 / 이상철 / 이정중 / 임태성 / 정동일 /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이메일 gysoko@korea.kr 기획 디자인 디에이치(주)
발행일 2022년 1월 1일

음성으로 들어요
'고양소식 소리방'
전월호 다시 듣기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2022년,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은 고양에 참 특별한 해입니다.

과거로부터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는 특례시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30년은 한 사람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긴 세월입니다.

30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외모, 건강 등 거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 24만 명에 불과했던 한적한 마을은

인구 109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고,
전국 네 끗뿐인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양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도시입니다.

베드타운이었던 고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굵직한 자족사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큰 도시가 아닌 좋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 맞는 더 큰 권리와 혜택이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때
우리는 “고양시민이라서 참 좋다”고 비로소 느끼고,
우리가 발 디는 고양시도 비로소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시민이고, 우리 스스로가 고양시입니다.

2022년, 시민이 더 행복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의 한 해를 그려내겠습니다.

2022년 새해 아침
고양시장 윤립

존경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2022년 새해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이 코로나19를 물리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8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2년 고양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서 ‘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청구 제도 등 주민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기울여 부족한 점을 살피고 현장의 소리를 더욱
정청하며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 아침
고양시의회 의장 윤립

취업, 꿈을 이루는 '디딤돌' 되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는, 지난해 이런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통로를 열어 주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글 사진 정현숙(고양소식편집위원)



당성호노원 청년인턴 장현호(왼쪽), 이지연(우)

라이브방송 진행을 통한 현장경험

오후 4시에 시작된 고양시 유튜브 '이번학의 라이브 음악방송'을 앞두고 청년 인턴들은 2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피커의 음향조절부터 미리 선곡해 둔 LP판을 고르는 일 등 생방송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미리 점검해두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이브방송 진행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FD 역할인 생이다.

청년인턴 장현호, 이지연 씨는 이런 라이브방송 진행업무가 처음이지만, 평소 유튜브 스트리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티라 이 일자리가 너무 재미있고, 생방송 보조업무라 긴장감과 성취감도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청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 진행업무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장현호 씨는 평소 유튜브 편집을 조금씩 배워왔는데, 이 일이 끝나면 유튜브 편집과 스트리밍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지연 씨는 디자털 콘텐츠 관련 마케팅 일을 하고 싶었는데 더 확신을 얻게 되어 보람찬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의 꿈

어르신들에게 줄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식당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만들어 진 음식을 담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인턴들이었다.

청년인턴들은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포장한 뒤, 인근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걸어가서 배달해주거나, 먼 곳은 직접 차를 운전해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일을 담당했다.

청년인턴 김익현 씨는 잠시 일을 쉬던 중 이번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로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노인들이 도시락을 전달해주면 너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에 이 일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 있

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와롭고 힘든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 일을 하게 된 청년인턴 성하은 씨는 도시락에 담을 음식을 만드는 일을 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너무 뜻깊은 일자리였더니 나중에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고 말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제작

조용한 다른 관공서 사무실과 다르게 생동감과 활기가 넘쳤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어울려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고양시 관광지를 잘 홍보하고 영상물을 멋지게 제작할지 고민하며 콘텐츠 개발하는 일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모습 이었다. 고양시 관광과에는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관광개발팀, 관광정책팀 모두 25명이 함께 일했다.

이들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고양시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영상을 제작하고 멋진 홍보글을 작성해 고양TV에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었고, 고양시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채널을 통해 고양시 홍보대사로 활성하게 활동해왔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일한 청년인턴 정지영 씨는 여행블로거로 일하다 참여하게 됐는데, 혼자 일한 것보다 관광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대화를 갖 출연한 청년인턴 이지현 씨는 다른 선배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어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업무 지원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곳, 고양시 각 접종센터, 보건소,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청년인턴들의 수고와 땀이 곳곳에 배어있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청년인턴들이 함께했다.

고양희망 청년인턴은 지난 2021년 보건방역, 복지 분야를 비롯해 도시재생, 환경, 행정보조 분야에서 모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며 취업의 꿈을 키우게 해주었다. 일부 청년 중에는 청년인턴으로 일하다 취업의 문이 열린 청년도 적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청년인턴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만족하였다는 평가를 반영해 올해 2022년에는 청년들이 실무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양청년희망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40여개 사업에서 149명을 선발하여 1월 3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



문화복지관의 청년인턴



관광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



접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들

고양시 청년 희망 일자리사업

문의 일자리정책과 031-8075-3207



청년인턴의 도시락비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상당점

고양시민의 주거걱정 없는 행복꿈터 만들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2021년 7월, 원당 도시재생지역 내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에 문을 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직영센터 운영으로 주거안정 욕구가 있거나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민 누구나 상담받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고양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살펴보자.

글 사진 송혜령(고양시 주택과 주무관)

고양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주거복지센터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을 차용하여 인테리어 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상담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주거복지사업 안내와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임대주택, 공고 등 주거복지 관련 사업들이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이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사업 등을 정리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blog.naver.com/gy_housingwelfare)'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주거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교육도 진행하였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고양시 내 주거복지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다. 현재 네트워크 단체인 LH 고양 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주) 주거복지등급공무원 대상 교육 (아래)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입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고양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양시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올해 초, 기초조사 및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오는 7월에 결과물이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주민대상 교육으로 정리수납 및 도배, 페인트, 생활설비 등 셀프 집수리를 위한 집수리 아카데미 초급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대상 교육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악자들을 위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 모두가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문의 03-805-3840



주거복지
센터
바로가기

홀몸 어르신 돌보는 고양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은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노쇠하고, 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고양시는 홀몸 어르신 고령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 사진: 한순주(고양시 노인복지과 주무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인돌봄 지원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돌봄' 확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현장에서는 생활지원사가 주 3회 전화와 방문으로 어르신들의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인 가정 내 활동감지·화재·가스 감지 등이 가능한 ICT응급인전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119로 자동 연계되는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께는 AI돌봄로봇을 활용해 악복용이나 식사시간을 알려주는 등 건강관리를 돋고 어르신의 활동무가 되어주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노인돌봄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활력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취약노인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악화를 막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여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진тон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돌봄현장에서는 실버체조, 치매예방활동, 영양교육 등 신체 건강프로그램과 정서 지원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힐링텃밭, 미술 활동,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정서·자신체적 건강을 돋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 ICT응급인전장비 설치
(아래) 신체건강을 위한 실버체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가사지원과 외출동행까지 건강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해 가사지원과 외출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 산책 등 어르신이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자가 동행해주시니 외출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현재 고양시는 스마트돌봄과 결합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로 출출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무주택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 문제일 것이다.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글. 이유진/고양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아이 낳고 싶은 도시, 고양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비혼과 딩크족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 이에 고양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2022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2021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에는 반기문 소식이다.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신청은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① 신분증 ② 신청서·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의 도장이 찍힌 서약서 및 동의서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서류를 발급·작성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신청 기간 확인 필요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이후 2월 28일까지 약 22일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신청이 있어야만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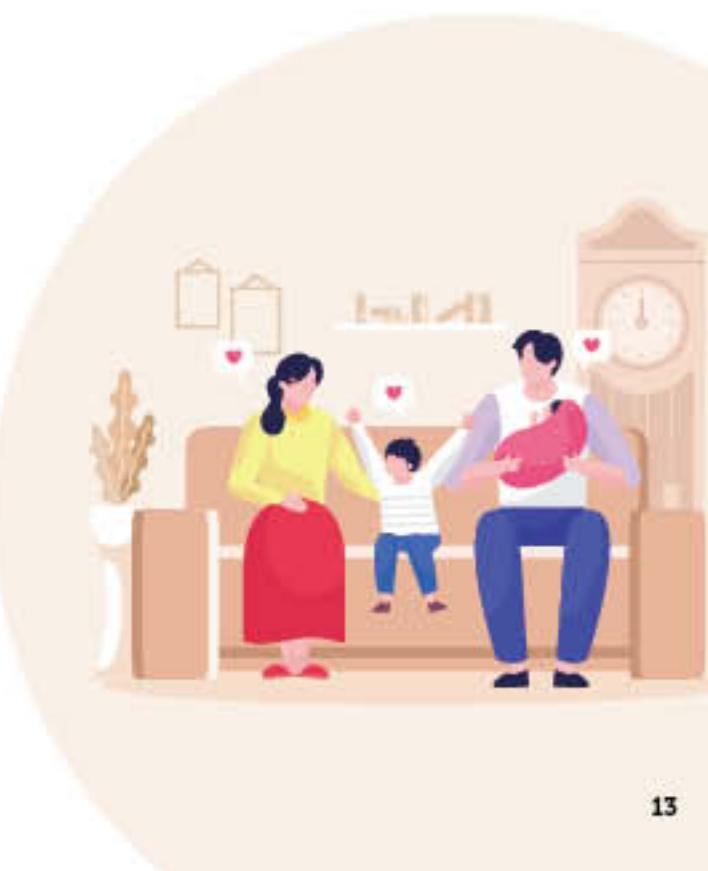
출산 가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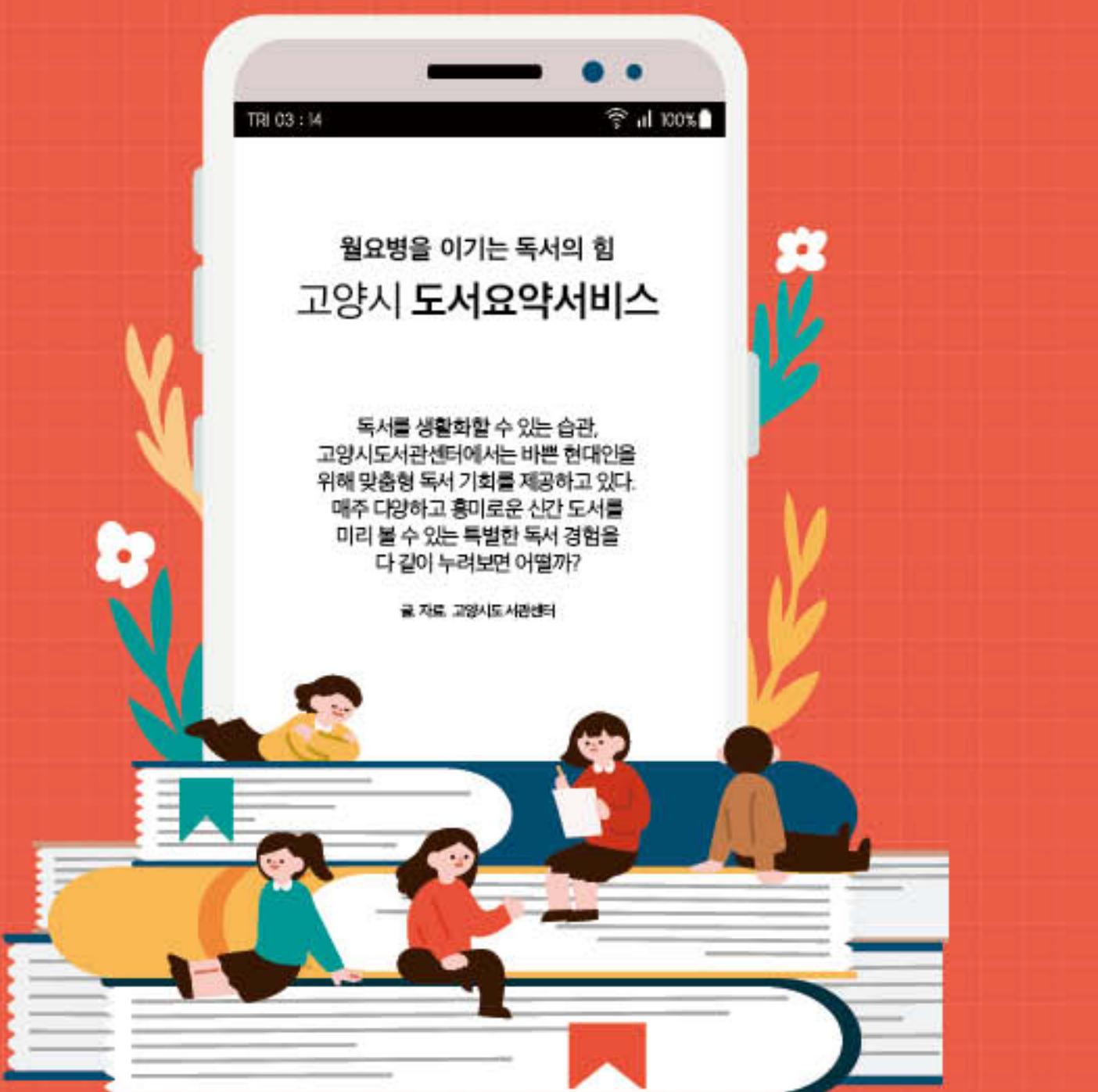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로 ① 직전연도(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우단, 최초 신청 시) ②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⑤ 전월 가구소득이 기준증위소득의 150%(세전소득으로 3인 가구 5,975,925원, 4인 가구 7,314,435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과 유지조건은?

20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번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초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재개되지 않는다.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의 핵심을 미리 알자

2022년 새해를 맞아해 독서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현대인은 바쁜 일상으로 책 읽을 기회조차 많지 않다. 이에 점점 독서와 멀어지고 있다. 또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이럴 때 온라인 도서요약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온라인 도서요약서비스는 바쁜 일상과 코로나19 등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시공간적 제약 없이 독서할 수 있도록 돋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인문교양, 경제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신간 도서의 핵심 내용을 A4용지 10~15매 정도로 요약해 30분 정도면 책 한 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도서요약, 국내 미출간 상태의 비즈니스 원서를 발굴하여 리뷰 형태로 제공하는 해외원서 프리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최신 글로벌 트렌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서요약본을 읽어보고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양시 19개 시립도서관과 17개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를 직접 빌려볼 수도 있다.

고양시 도서관센터



도서요약서비스 홈페이지



오늘의 독서 휴대전화화면

<오늘의 독서> 다양한 분야의 추천도서가 내 스마트폰으로
독서를 도와줄 또 하나의 서비스는 <오늘의 독서>다. 매주 월
요일 아침 8시, 따끈따끈한 책 요약 콘텐츠가 내 스마트폰으
로 배달된다. 해당 서비스 신청자에게 비즈니스, 인문, 자기계
발, 힐링, 자녀교육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신간 도서 요약정보
를 키카오도록 알림톡으로 발송해준다.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늘의 독서로 다양한 분
야의 책을 미리 읽어보자.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자!

온라인 도서요약서비스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서요약메뉴를 클릭하면 원하는 도서의 요약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도서요약
서비스
바로가기



오늘의 독서

구독 신청한 선착순 500명의 시민에게만 우선 제공되며, 도서 예약서비스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북한산성 내 관성소 위치(동국여도 19세기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기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된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¹ 및 상창지²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대청과 창고건축이 중심 영역에 주를 이루는 매우 독특한 사례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기념물로 새롭게 지정됐으며 북한산성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 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진 중앙 관아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 사진 김수현(고양시학예연구사)

1. 북한산성 관성소지(北漢山城 閩城所): 관성장(營城榜)을 배치하여 산성을 수비하는 군사를 통솔하고, 상창의 바족된 양곡을 관리하던 부서

2. 북한산성 상창지(北漢山城 上倉): 북한산성 내 있는 7개의 식량 창고 가운데 관성소가 관리하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창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군 성과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亮磧 北漢山城 閩城所址 및 上倉址)가 2021년 11월 18일 경기도 기념물 제229호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덕양구 북한동 59번지에 소재하는 이 유적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북한산성 행궁지(北漢山城 行宮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북한산성 내 북한동 역사관을 출발하여 중성문, 산영루, 증홍사 등을 지나 약 1시간을 산행하다 보면, 행궁지와 대남문의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 1분 동안 대남문 방향으로 올라가면 바로 오른편에 마주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유적은 비지정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상 보존·관리받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고양시에서 지난 2020년 6월,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재청의 국비 100%를 지원받아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 3월에는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여 약 8개월 만에 '기념물 신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산성 관리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북한산성 축성된 다음 해인 1712년(숙종 38) '관성장(營城榜)'이 배치되어 산성을 비롯하여 행궁, 3군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왕), 창고(호조창, 상창, 중창, 하창), 산성 수비 사찰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전담한 중앙의 관아시설이다. 1747년(조선 영조 23)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논쟁으로 혁파되어 충용창에 이송되어 운영되었고, 1879년(고종 16)에는 잠시 무위소로 이관되었지만, 1891년(고종 28) 수도 한양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설치하여 북한산성 수축과 행궁을 중수 작업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적과 관련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옛 사진으로 본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 및 상창지(1911년 6월 5일 노베르트 베어 신부와 독일 총영사 크루거 박사 일행, 성 베네딕토에 라수도원 소장 자료)

「북한지」, 「만기요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기요람」에는 "관성소는 상창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 12칸, 향이고 63칸, 군기고 3칸, 집사정 3칸, 군관정 4칸, 서원정 4칸, 고지기 집 5칸, 월랑 2칸, 각문 2개이다"라고 그 규모가 명확히 기록되었는데, 2020년 실시한 시굴 조사에서도 중심건물인 대청(18칸)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지가 확인되어 문헌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근대기 시각자료인 유리간판 사진에서도 건물의 배치와 추정 구역을 살펴볼 수 있다.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북한산성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 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진 중앙 관아이며, 상창은 산성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 놓기 위한 시설이다. 급격한 현대화로 현재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서울)에 삼군영이 잔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영지(관아) 및 창고지(상창)이자, 산성의 운영 및 관리 상황을 비롯해 관방체계 및 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유산의 완전성을 증명해주는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에서는 유적의 권역과 건물의 배치 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를 계획 중이다. 향후 이러한 학술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양시에서 즐기는 평화여행 DMZ 평화의 길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2021년 11월, 드디어 고양시 DMZ 평화의 길이 열렸다. 60여 년간 굳건했던 철책 철거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곳, 고양에서 남북화해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글 사진 이민숙(고양 관광서포터즈)



DMZ 평화의 길도보구간

가까이에서 마주한 평화의 길

6·25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은 전쟁 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을 지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평화통일을 꿈꾸고 있다. 오늘은 평화의 상징 DMZ 평화의 길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평화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다.

DMZ 평화의 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평화 테마길로,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총 길이가 무려 524km에 이른다. 그중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2021년 11월 임시 개방되었다.

DMZ 평화의 길 고양 코스는 정발산역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하여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 탑조대, 동일촌 군 막사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총 길이는 3.5km의 도보 구간을 포함하여 29.5km다. 관람객들은 약 3시간 30분 동안 탐방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한 시티투어 버스는 약 15분 만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도착한다. 이곳은 군 철책선이 가장 먼저 걷힌 곳으로, 2012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현재는 고양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북한 간첩의 침입을 경계하던 군 초소 행호정은 이제 한강하구의 기수 현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DMZ의 축소판, 장항습지

DMZ 평화의 길 두 번째 코스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니 눈앞에 지하드가 나타났다. 자유로 아리를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손전등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터널 곳곳에 그려진 장항습지의 동식물들이 반긴다.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법곡동에 걸쳐 있는 한강하구 습지로 2021년 5월 침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DMZ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장항습지는 선버들 군락지와 말똥계 서식지로 유명하며 큰기리기,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 철새들의 도래지이다. 한편, 장항습지는 DMZ 평화의 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장항습지 탑조대에 오르니 탑조대 좌우로 자유로와 맞닿은 습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다. 바로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정전 후 68년간 일반 시민들에겐 금님의 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날 탑조대에서는 생태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항습지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평화 열쇠고리도 만들어볼 수 있었다.

평화를 염원한 다른 뜻, 같은 공간

이후, 장항 막사에서 동일촌 군 막사까지 약 3km의 도보 구간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길 조성으로 개방된 구역이다. 처음에는 군사 경계 때문에 이중철책이 쳐져 있었으나,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바깥쪽 철책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었다.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걷다보면 또 다른 지하터널이 나타난다. 이 터널은 실제 군사들이 사용했던 군용 터널로, 벽 곳곳에 훈련 흔적이 남아있다. 그 누구보다 조국의 평화를 염원했을 군인들의 흔적을 짚으며 동일촌 군 막사에 도착했다. 동일촌 군 막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실제 군인들이 사용하던 기지로, 2022년 하반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동일촌 군 막사를 마지막으로 DMZ 평화의 길 고양 코스는 끝이 난다. 다음날 고양시의 또 다른 평화여행지인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고양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방문 가능하다. 1시간 30분가량 문화관광해설사의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는 이곳은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가구는 물론 그릇 하나하나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저 기념관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내외의 생활공간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고, 마당 지하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은 기념관으로 변신하여 민주화와 평화에 앞장섰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 노벨평화상 기념주화와 엽서도 전시되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을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까지 함께했던 고양시 평화여행은 동일이 가져다줄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곳, 소망과 염원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솟대 앞에서 2022년 새해 소원을 비세요" 아름솟대갤러리 김숙경 작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안테나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콘텐츠, 솟대. 장대 위에 앉아있는 새는 현재 해외에서 극찬을 받는 중이다. 그 솟대의 범용성을 넓히기 위해 여념 없는 김숙경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김은정(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김오늘



어제의 솟대…천지인을 연결하는 매개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땅에 기다란 솟대를 꽂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질문과 소망을 빌었다고 한다. 왜?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맥으로 통해 있다 믿었으니까.

새 모양의 조각을 기다란 나무 악대기에 달아서 마을 어귀에 꽂는 솟대는 우리나라 전통 조형물이다. 단순한 조형물 같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대단하다. 예전에는 의례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질병과 재앙 같은 악운을 막아주고, 농사 잘되고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고 하늘과 땅에 비는 동신제(洞神祭)를 지냈다. 동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솟대가 있는 마을 어귀였다.

대한민국 솟대작가협회 회원이자 아름솟대갤러리의 대표작가인 김숙경 작가는 솟대를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희망의 매개체’로 정의한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면 솟대를 세워서 축하해왔다고 해요. 참 따뜻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짜증해서인지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솟대도 우리 기억 속에서 잊하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김숙경 작가는 솟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情)과 모두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상생(相生)의 문화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솟대…해외에서 뜨거운 반응

김작가가 솟대와 인연을 맺게 된 건 18년 전이다.

“지인한테 솟대를 선물로 받았어요. 첫눈에 부드럽고 단아한 우리나라 멋이 담긴 솟대에 반했죠. 의형도, 의형이지만, 솟대의 상징의미가 ‘상대가 잘되기를 바람’이라는 걸 알고 완전히 매료됐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솟대에 빠져든 김 작가는 현재 성신여대대학원 생활문화소비 저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물론 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전통 솟대

의 문화적 활용이다.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북아시아 지역에 새를 카리터로 한 솟대가 존재했어요.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시조로 알려진 동이족이 새를 숭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전에서 출토된 보물 농경문 청동기(農耕文青銅器)에는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 한켠에 두 마리의 새가 장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요. 맞아요, 솟대죠.”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나라 솟대를 소개했는데, 가는 나라마다 반응이 뜨거워서 행복하다는 김 작가. 하지만 짧은 한숨과 함께 안타까움을 쏟아낸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계승하는 것처럼 솟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 좋겠어요. 솟대는 청자 백자 못지 않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의 솟대…K-콘텐츠로 등극

일산동구 풍동과 북한산 자락에 있는 김 작가의 작업실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솟대를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4m에 달하는 솟대를 마을 어귀, 다시 말해 실외에 세웠다면 김 작가는 실내에 들 수 있는 솟대를 만들고 있다. 선조들이 구현했던 부드럽고 단아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웃칠과 나전칠기를 기꺼이 활용해 완성도 높은 예술미를 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솟대의 현대 버전이다.

우리 민족의 상생 정신이 담긴 솟대를 알리기 위해 종처럼 작업실에서 나가질 않는 김 작가 최근에는 솟대의 범용성을 넓히기 위해 솟대와 의식주 속 생활용품 끌리보에 집중하고 있다.

“웃감에 솟대 캐릭터를 프린팅하면 옷, 가방, 운동화 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식탁에 오르는 컵, 텀블러, 그릇, 수저와 젓가락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세워놓거나 벽에 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답니다. 조명으로 변신시켜도 멋있을 겁니다.”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을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을 솟대. 김 작가는 K-팝 K-드라마, K-패션, K-푸드에 이어 K-콘텐츠로 솟대가 떠오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을 하늘에 물었다고 해요. 장대 위에 앉아있는 새가 인간의 말을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말을 인간에게 전해준다고 믿었던 거죠.”

최근 들어 솟대 앞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솟대를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늘에 물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김 작가. 그녀는 말한다. “섣달 무렵에 솟대 앞에서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네 풍습이 있잖아요. 한류월드를 디자인 중인 고양시와 고양시민 여러분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에는 세계와 함께 더욱 반짝이길 바랍니다”라고.

마두1동 새마을부녀회

새해 '떡국 한 상' 나누기

글·사진: 모강아(마두1동새마을부녀회총무)



※마두1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마두1동 새마을부녀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우한 이웃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자 비상은 회장과 회원 및 직능단체 봉사자분들과 겨울나기 큰 행사 중 하나인 김장 행사를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다. 행사를 마친 후, 새마을 지회 등 부녀회 지원사업으로 아끼두었던 비용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고심했고 회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웃에게 선물 같은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마다 반찬 봉사를 할 때면 가장 소외되기 쉬운 이웃이 지역 내 취약 계층분들과 한부모가정 등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이웃들이 있다. 때로는 직접 방문하여 안부 인사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살펴도 보고 말벗도 되어 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작은 정성을 나누고 함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추운 줄도 모르고 이웃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버섯을 넣고 조물조를 양념한 소불고기와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맛있는 동그랑땡과 새해에 꼭 빠지지 않는 새해안 떡국을 준비하였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메뉴로, 정성이 한가득 담긴 음식 꾸러미들이다. 직능단체 위원들과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니 따뜻했던 봉사. 마두1동 봉사자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의 뜻에 공감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사랑의 집에는 장애인 8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언제나 서로 돋고 살피는 것은 물론 작은 것 하나까지 함께 나눈다. 그런 이웃들이 반찬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손이 점점 바빠진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웃들의 밥상에 올랐다. 맛 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노고가 눈처럼 녹아내렸다.

50가구 이상이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떡국과 맛있는 음식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새마을 지회와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코로나로 우울한 나날이 지속하고 있지만, 새해를 맞아 모처럼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꼭 새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어느 편 "이렇게 추운데 수고가 많았겠다"라며 미안해하시면 오히려 죄송스럽기도 하다. 때론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로해주시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이웃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간직하며 마두1동 부녀회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할 것이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모두가 함께 만든 마을소통 공간

글·사진: 서화정(문촌13단지마을소통협의회 회원)



※ 주업2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밀 곳이 없어 소통이 어려웠던 우리 마을에 지난해 12월, 마을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꿈과 목표로 사람들이 뭉쳤다. 먼저 동대표, 선거 관리위원, 노인회 임원, 동장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모였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자문과 안내로 공동체교육, 주민자치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마을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지하주차장 내 창고를 커뮤니티 센터 장소로 선정하고 전체 주민에게 장소 이용 동의를 받았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쉼터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지하시설의 공기 질 개선 방안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 시에 안전한 이동로 확보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을쉼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이 기본 소식을 전 주민에게 알리면서 마을소통 공간의 이름을 공모, 주민 전자투표 결과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란 명칭이 선정되었다.

이름은 정해졌지만, 마을소통 공간을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집, 전문가를 초빙한 상상교육, 지자체 공동체지원센터와 기획회의를 이어갈수록 의견은 다양해지고, 예산은 점점 저해됐다. 결국, 모든 욕심을 버리고 초등학생과 어르신들의 쉼터에 적합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에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공동사용에 무리가 없는 건고형과 물에도 안전한 초발열미루로 바닥 소자를 결정했다. 높은 충고를 이용해 공기순환에 유리하도록 천정을 활용하고, 장래 형편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도 준비했다. 천정형 냉난방기와 빙프로젝트는 중고제품으로 설치했다.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공간 내벽에 수성페인트를 칠하고 센터 앞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해 에폭시 도장 후, 배수로 덮개를 설치했다. 가중반은 테이블과 의자, 노인회 총무가 설치한 방송시설과 스크린, 재활용품을 일부 활용하여 커뮤니티센터를 꾸미니 아주 훌륭한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가 탄생하였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이해와 친총, 대안 제시로 공동주택에서도 아름다운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 문촌마을13단지는 2021년도 고양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되는 평가를 이루었다. 공동주택을 얼마나 두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앞으로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는 단지뿐 아니라 주업2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더 나아가 고양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이 탑승스럽게 자라고 입주민의 정과 사랑이 넉넉히 채워져 살기 좋은 아파트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다. ☺

“제2의 삶,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일산3동 주민자치회 윤기남 회장

교직에만 40년을 머물렀다.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여유를 만끽했지만, 이내 무료해졌다. 그러다 ‘내가 사는 일산3동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하게 되었다. 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을 위한 일에 골몰하느라 그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글. 공주영(편집부) 사진. 조병우



일산3동 주민자치회 보俭드로고 디자인 확장을 위한 주민부표

마을 안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어머니방범대

2015년 2월 퇴직 이후, 그는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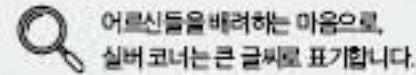
‘40년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저에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둘러보던 중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일산3동은 교육·문화마을이라 칭할 만큼 학원이 정말 많아요. 공부를 마치고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어머니방범대를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학원을 마칠 무렵이 되면, 주변은 컴컴해졌다. 어두운 골목에 모여 있는 아이들도 자주 보였다.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도 그렇지만 학교에 오래 몸담은 선생님의 마음으로도 그런 모습이 그냥 자나쳐지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윤기남 회장은 어머니방범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점차 어두운 골목에 머무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마을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다.

교직 생활의 경험, 마을에 보탬 되는 일로 녹아내다

어머니방범대로 활동하면서 방위협의회 회장직도 2년 가까이 했다.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터라 자치위원회 활동을 한지 1년여만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감투를 썼는데 막상 하고 보니 자신에게 더 즐거운 일이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교무부장,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서류를 꾸리거나 행정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여러 사이트를 뒤지며 마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없나 찾아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수주해냈고요.”

2020년 9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교육 커뮤니티 공간인 후곡마을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고양시마을공동체에서 지원받아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해교실을 열기도 했다. 그 외 2021년에 추진한 소통대통 공동체, 후곡소리단도 윤기남 위원장이 앞장서서 즐겁게 해낸 마을 활동이다. 이런 노력으로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 고양시장 표창장과 202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주민자치회, ‘한 일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2021년 10월 8일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자문과 심의였다면 주민자치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된다.

‘권한이 더 부여된 만큼 책임감도 커졌어요. 세칙을 정하거나 분과를 구성하는 등 할 일이 많아졌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일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올해도 열심히 해야지요.’

얼마 전 주민자치회에서는 후곡교육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 같이 둘자동네 한 바퀴, ‘온라인 건강 강좌’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 후동공원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띄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했더니 비대면임에도 마을 축제 느낌이 더해졌다. 덕분에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즐거웠다”는 주민 전화도 많이 받았다. 이런 소통이 오가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실기 좋고 사람 좋은 일산3동’. 윤기남 회장은 마을에 대한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애정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해낼 것 같다. ☺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새해 덕담 노하우

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건네는 인사말 '덕담'. 하지만 이 '덕담'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이에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새해 덕담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다.

정리 편집실

비교보단 함께 지나온 세월 추억하기

가족은 함께 보낸 세월이 길기에 과거의 일을 칭찬하고, 함께 떠난 여행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명절 연휴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추억과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덕담의 주제는 비교다. 학교성적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연봉, 결혼 비교 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명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만큼 덕담을 건넬 때 반드시 피해야 한다.

GOOD! “예전에 놀러 갔을 때 재밌었는데,
나중에 또 놀러 가자.”

BAD. “옆집 애는 벌써 취직하고 결혼한다더라.”

사생활 질문 대신 격려의 말 건네기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최근 애인과 이별한 조카에게 애인의 안부를 묻거나, 퇴사 후 휴식을 취하는 조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덧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과 취업 계획 등은 모두 사생활이기에 이러한 질문 대신 “코로나라 힘들지 건강 조심해라”라는 말로 응원하는 것이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GOOD! “오랜만에 보니까 키가 정말 많이 컸네~”

BAD. “공부는 열심히 하니? 반에서 몇 등이니?”

미소를 부르는 공감의 힘

공감은 불화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덕담을 건넨 사람으로서 허탈하기 마련이다. 이에 웃어른이 덕담할 경우, 긍정의 끄덕임과 감사를 표해보자. 그럼 덕담을 한 사람도, 덕담을 받은 사람도 두 배로 행복해질 것이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것이다. 설령 부모님이 비교의 말을 꺼냈더라도 ‘네.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공감의 말을 전하면 부모님의 덕담은 잔소리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GOOD! “감사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 노력할게요!”

BAD. “그만 좀 하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부정적 표현 대신 고마운 마음 전하기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함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가시 들큰 말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나의 힘듦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피곤함에 고마움을 표하는 게 먼저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만 남아 누적된 피로를 해소해 줄 것이다.

GOOD! “음식 하느라,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어~”

BAD. “나도 힘들어 4시간째 운전만 하잖아!”

덕담의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배려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건네며 더 행복한 명절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청소년의 방과후를 책임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들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교과학습지원과 전문체험 활동, 급식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은 물론, 보호자와 청소년,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기회까지 제공한다.

학교 교육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글 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양시가 지원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전 영역에 대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고양시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덕양구 2개소, 일산서구 1개소로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마다 참가자 모집 대상과 프로그램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과 기관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 종합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 기관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모집 마감 시 대기자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분	내용
운영시기	2022년 1월 ~ 12월
참여대상	초등학생 4~6학년(기관별 상이)
운영시설	관내 총 3개소 덕양구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청 및 문의방법	기관별 유선연락



토당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명칭 : 한울

구분	내용
위치	토당청소년수련관 /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참여대상(2022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운영시설	▲교과학습(국어·영어·수학·급수·한자) ▲체험활동(창의미술·생활체육·셀프리더십·악기수업) ▲생활지원(급식·상담·귀가버스) ▲보충학습(자기주도학습·플래너·멘토링) ▲특별지원 활동(동아리활동·지역사회참여활동·지역연계활동)
신청 및 문의방법	031-995-4141-3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명칭 : 노을학교

구분	내용
위치	성사청소년문화의집 / 덕양구 어울림로 33(별마기배움터 1층)
참여대상(2022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운영시설	▲교과학습(국어·수학·영어·중국어) ▲체험활동(방송댄스·칼铭바·코딩·창의과학·동아리활동) ▲생활지원(급식·상담·귀가버스) ▲보충학습(자기주도학습·플래너·멘토링) ▲특별지원 활동(동아리활동·지역사회참여활동·지역연계활동)
신청 및 문의방법	031-995-4206-8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명칭 : 라온꿈터

구분	내용
위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 일산서구 일산로 586
참여대상(2022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운영시설	▲교과학습(스토리텔링(국어), 창의수학·영어·자기주도학습) ▲체험활동(코딩·창의미술·진로·풋볼·요리) ▲생활지원(급식·상담·귀가버스) ▲주도활동(자기주도학습·독서활동·멘토링·보드게임·칼铭바) ▲특별지원 활동(동아리활동·지역사회참여활동·지역연계활동)으로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및 문의방법	031-995-4192-4



청소년 활동 정보 채널 & 플랫폼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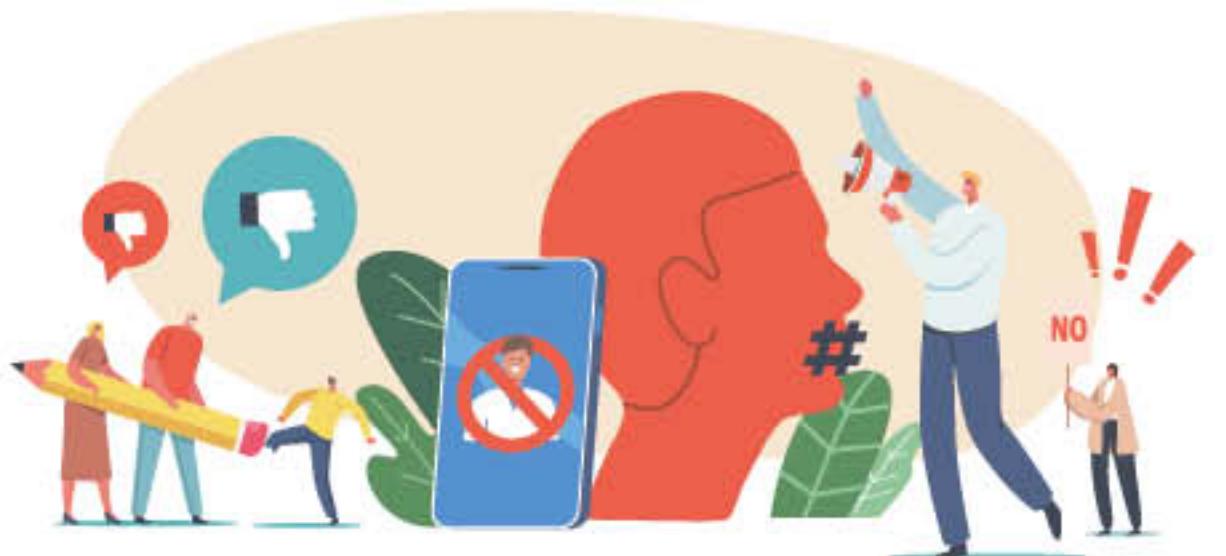
- 유튜브 '재단법인고양시청소년재단'
- 통합홈페이지: <https://www.goyf.or.kr/>
- 페이스북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goyouth
- 인스타그램 '고양시청소년재단' @goyangyouth,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재단법인고양시청소년재단'
- 고양시청소년활동정보 APP '고양시청소년재단'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듣보기

수필 분야 장려상

편견도 거리두기

글 김화여



하낫 둘, 하낫 둘, 세엣….

건강, 그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닌가. 2019년 한 여름, 그 날도 나는 동네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

뒤뚱뒤뚱… 절뚝거리는 다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공원을 걸었고, 공원에 마련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몸이 내 맘을 따라주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리라 하며 잘 되지 않는 운동이지만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있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이윽고 신경을 끄고 내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자신만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사람들의 힐끔거림은 익숙한 것이었고, 내가 걸을 때나, 몸을 움직일 때나 잠시 동안 힐끔거릴 뿐 나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날도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츄리닝을 입은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를 계속 아니꼬운 듯이 쳐다보았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쳐다보는 건가? 나는 생각을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잘 따라주지 않는 몸이 신기한 건가’ 하면서 내가 가진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한참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다리를 고정시키고 운동기구를 이용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병신이면 집에 가만히 있든가 왜 공원에 나와서 난리야”

그 목소리에 나는 그쪽을 돌아보았고, 그 아저씨는 나를 바라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내가 불쾌하다는 듯이 몇 초를 응시하다 그 아저씨는 뒤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의아했다. 나는 그저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운동을 하면서 같이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놀라서 기구에 고정시킨 내 발만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 날 이후 나는 공원으로 나갈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불쾌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 아저씨는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공원을 걸을 때마다 조금 더 조심조심 걸었고, 운동도 조금씩 줄여서 했다. 공원에 내가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게 혹시 민폐인 걸까? 생각도 했다. 내가 절뚝거리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불쾌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면 안 되나요? 그 아저씨께 물고 싶었다.

그러다 2019년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2020년이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도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강신청을 했고, 비대면이지만 ‘생활스포츠’라는 교양강의를 듣게 되었다.

생활스포츠라는 과목은 원래는 학교 체육관에서 이론과 함께 진행되는 수업이었지만 비대면 교육방침으로 2020년에는 이론 강의만 영상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수강신청을 했던 거였다.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방식대로라면 제대로 강의에 참여할 수 없어 학점을 제대로 못 받았을 테지만, 비대면 이론 강의니 나도 참여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했다. 강의는 영상이 제공되었고, 강의실을 대체해 SNS 단톡방이 생겼다.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은 조별채팅방에서 이루어졌다. 내 장애가 수업을 들을 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나는 강의 영상과 PPT를 보면서 학우들과 열심히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다.

강의는 비대면이었지만 성적평가는 기말고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학교에 나가야 했다. 한 학기동안 토론과 강의 노트를 통해 배운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적고 교수님께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제출하려 교탁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걸음과 답안지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교수님께서는 놀라시

며 내게 말을 거셨다.

“스포츠 강의인데 회에 학생이 단톡방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강의 재밌었나요?”

“네, 재미있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학기동안 수고했어요, 기봐도 돼요.”

답안지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있었다. 오늘 교수님을 처음 봤지만 교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운동치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원래 운동을 직접 했어야 하는 강의였는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신체의 능력이 아닌 강의에 임하는 태도만으로 나를 교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었고 나는 그게 감사했다. 내게 주어진 신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태도, 정신… 늘 열의 당했던 분야에서 좋게 평가받는 기분은 색달랐다.

장애인은 정신이나 신체의 한 부분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주어진 신체능력이 별로 좋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겪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그랬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깥에 나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더 정확하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자신만의 ‘한계’가 있는 것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장애인임에도 비대면수업을 통해 신체의 제한에 상관없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렸다. 공원의 아저씨의 편견 불편한 신체에 대한 속상함들은 치유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장애인인 나조차도 신체의 제약 없이 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코로나시대의 방식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한계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 그 능력으로 편견을 부수는 시대,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능성일 것이다. 😊

키워드로 전망하는 2022년 트렌드

2022년은 암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다.
한 해를 더 호기(虎氣)롭게 보낼 수 있는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 책 '트렌드코리아 2022'



나노사회(Nano Society)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뜻이다 즉, 나노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면서 개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알고리즘 등이 개인 간의 장벽을 더 높이고 있는 만큼 나노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향한 공감력이 필요하다.

머니러시(Money Rush)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즉, 투자와 투잡(N잡) 등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킨다. 특히 투잡의 경우 유튜브와 SNS, 온라인 플랫폼 등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1인 미디어 급증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는 세포마켓이라 불리는 1인 마켓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득템력(Gotcha Power)

경제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차지하는 능력을 이른다. 득템력은 정보·시간·정상·인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희소한 상품을 구매가 아닌 획득하는 능력이다. 득템력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소비욕구를 자극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시중일관 새로운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다양한 매체와 첫바퀴 도는 듯한 일상 놀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긴 코로나 상황 등에 지쳐있다면, 가끔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멍때리기를 즐겨봐도 좋겠다.

헬스풀레저(Healthy Pleasure)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폐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의 건강관리였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에도 즐거움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확산했는데, 여기에 SNS 인증과 경험·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엑스탄 이즈 베(X-teen Generation)

MZ세대와 관련된 트렌드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의 규모나 파급력으로 볼 때 소비시장의 주요 세대는 X세대(1965~1979년).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한 X세대는 세계 담론의 출발점이었으며, 현재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탄(X-teen)'으로 불리고 있다.

비른생활 루틴이

루틴을 통해 자기 관리에 칠저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자기 만의 의미 있는 일상을 살피하고, 스스로 비른생활을 추구하며 정해진 생활 루틴을 지키려 한다. 비른생활 루틴이라는 재택근무 확산과 근로 시간 축소 등으로 생활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것으로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계발이 아닌 힐링을 도모하며 미세행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실재감테크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비대면 회의와 면접 등이 늘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실재감테크'가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사라져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이다. 공간을 창조해 생활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메타버스와 가상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라이크커머스(Like Commerce)

라이크커머스는 소비자가 '좋아요'를 누르는 데서 구매가 시작되는 차세대 유통시장이다. 기존 생산자 주도의 패러다임에서는 공급망관리가 중요했지만, 라이크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화장품보다 뷰티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라이크커머스의 보편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자본(Tell Me Your Narrative)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러티브가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내러티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석해지는 과정이다.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말의 주체가 창의성 있게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하반기 부과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5% ~ 10% 감면

부과대상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16일 ~ 3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즉, 1년분의 약 5% 감면)

신청방법

·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1월 16일부터 일시납부 신청 즉시 납부 가능)

· 전화(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기후에너지과 ☎ 031-8075-2648, 2649, 2650, 2657)

우편창구 운영시간 변경 안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물의 운송시간 확보 및 집중국 처리 물량 분산 등을 통한 정시소통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체국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시간 조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송차 도착시간이 관서별로 달라 우체국 우편창구별 오늘출발 우편물 마감시간이 상이하 있으니, 우편물 접수 시 유의하여 주세요.

변경사항일 2022. 1. 3.(월)

우체국명	오늘출발	다음날 출발
고양일산우체국	09:00 ~ 17:30	17:31 ~ 18:00
고양여양우체국		

* 당일발송을 위해서는 '오늘출발' 접수시간 17:30까지 접수 원칙입니다.

* '오늘출발' 접수시간 이후 접수되는 우편들은 다음날 영업일에 출발하며 배송일이 1영업일 추가로 소요됩니다.

* 접수 물량이 많을 경우 우편창구 대기시간이 길어지니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우체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한성(성능)증정식물은 마감시간 후 접수불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란?(도로교통법 제51조)

-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면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양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정
법칙금 10만 원	법칙금 9만 원	법칙금 6만 원	30점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금지지리는 시간 동안 점멸등을 사용하세요.

*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꼭 지켜주세요!

지역사회캠페인 '송산동 마을캠페인 이웃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2022. 1. 28.(금)까지

모집대상 송산동 거주 지역주민 중 캠페인 참여에 흥망하는 개인 및 단체 내용

활동기간	활동장소	모집 인원	내용
3월~11월	일산서구 송산동 내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2회 모임 진행 · 송산동 내 마을 관계 실리기 캠페인 진행 - 단지 앤리버너티 내 인사 스티커 부착 - 마을 내 관계 캠페인 기획 및 진행 - 활동 평가회 진행 * VM5 행사 참여

* 세부적인 활동 요일 및 시간, 장소는 모집 후 활동기획논의하여 결정

* 장소 고양시 문촌 7종합사회복지관 및 송산동

* 문의 이은승 담장(☎ 070-8693-2266)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1 ~ 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지원 사업 범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비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증증 후유장애자(1 ~ 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 원	7년 단위
피부암노부모 ¹	피부암보조금	월 22만 원	7년 단위
사망 또는 증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²	장학금	분기 20만 원(초) 분기 30만 원(중) 분기 40만 원(고)	7년 단위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자립지원금	월 7만 원	만 18세까지

1. 사고 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당사자 또는 유자녀와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2.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보완하는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수혜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지원(심리안정서비스, 방문케어서비스, 유자녀멘토링 지원 등)

지원안내

* 연락처: 담당자 김연진 차장(☎ 031-837-7601)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육아시민홍보단 2기 모집

모집대상 고양시 관내 미취학 영유아 가정의 부모 및 양육자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신 분 우대)

모집기간 2022. 1. 10. ~ 2022. 1. 31.

지원방법 전화접수 후 지원서(네이버 폼) 작성

활동기간 2022. 3. ~ 2022. 11.

합격자 발표 2022. 2월 중

활동내용 온라인 배움을 통한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홍보

활동혜택 - 육아시민홍보단 위촉장 수여

- 아이保姆맘카페 이용혜택쿠폰북 증정

- 신규장난감 우선 안내 및 대여

- 교육 및 프로그램 우선 공지

- 월별 우수참여자 선정 시 모바일 쿠폰 지급

- 가족사진 무료 셀프촬영권 제공(함께 기록하는 빅픽쳐)

- 1.365 자원봉사시간 인정

- 소정의 상품 증정

문의전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75-3314(내선 1번)

단독주택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시행 실시 안내(21. 12. 25.부터)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지역(별관 포함)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시행을 실시합니다!

대상지역 단독주택, 빌라, 연립 등 고양시 전체

시행일자 2021. 12. 25부터

배출방법 내용물 비우기→라벨제거→입축 및 두경단기→봉투 혹은 수거함에 별도 배출

고양시아이러브밀카페 E(편한) BOOK 대여

신청기간 2021. 12. 21.(화) ~
 신청대상 고양시민
 대여본수 E-BOOK 1권 일주일 동안 대여 가능, 대여 기간 완료되면 자동으로 반납됨
 필요서류 최근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1)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edchild.or.kr) 회원가입
 2) 장난감대여 아이러브밀카페에서 도서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0000원 결제(카드결제만 가능)
 3)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아이러브밀카페→E-BOOK 클릭 →E-BOOK 이용하기 클릭
 4) 자유롭게 E-BOOK 대여시작
 ※E-BOOK 회원가입 가능한 장난감대여지점: 관산동행정복지센터, 한현우보마제니스, 물동네누리, 희정육아클럽지원센터, 고양시여성회관, 이동식장난감도서관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75-3314(내선 3번)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안내

조사기간 2022. 1. ~ 2.
 조사목적 고양시민의 주거현황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고양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황을 위한 관계별, 계층별 주거복지 정책수립
 조사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
 조사방법 면접원 가구 방문 조사
 조사주관 고양시
 조사연구기관 고양시장연구원
 조사수행기관 한국리서치(☎ 02-3014-0111)

고양시 5개 행정동 산설 알림(2022. 1. 3.)

고양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불면 해소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5개 행정동을 산설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정 내용 5개동산설

- 막양구 : 흥도동 + 삼송동 → 흥도동, 삼송1동, 삼송2동
 행신3동 → 행신3동, 행신4동
- 일산동구 : 중산동 → 중산1동, 중산2동
- 일산서구 : 단현동 → 단현1동, 단현2동, 송산동 → 마이동, 가좌동
- 흥도동-행신3동 : 기존과 동일
- 삼송1동, 중산1동, 단현1동, 마이동은 기존 삼송동, 중산동, 단현동, 송산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일
- 삼송2동 : 고양시 막양구 원흥1로 46-13 S.J타워 1층·2층·3층·5층
 ☎ 031-8075-8442
- 행신4동 : 고양시 막양구 중앙로 454, 캐논프라자 4층·5층
 ☎ 031-8075-8472
- 중산2동 :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
 ☎ 031-8075-6522
- 단현2동 : 고양시 일산서구 단현로 120(K마트 2층) ☎ 031-8075-7532
- 가좌동 :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74번길 7, 송포농협 가좌지점 2층
 ☎ 031-8075-7562

업무개시일 2022. 1. 3.(월)

코로나19 선별검사소 혼잡도 정보 온라인 제공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선별검사소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잡도 정보 제공 장소 3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화정역 인근
 정발산역 인근
 대화운동장 주차장 선별검사소
정보 제공 내용 방범 CCTV를 활용
 30분 이내 검사가 가능하면 보통
 1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면 봄봄
 1시간 이상 대기할 경우 혼잡

확인방법 포털 사이트에 '고양시선별진료소 혼잡도'를 검색
 혼잡도 확인(goyangi-web.kr/map)은 PC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



지진 일반 상식

지진 육외대피장소?

'지진 육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로,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이 일정 시간 동안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해일 발생 시 지진해일 대피구 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의 야외 장소로, 해발고도 10m 이상의 언덕, 야산 등 고지대 공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주변 공원 학교 등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로 지정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피 표지판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안전 디딤돌 앱에서 우리 동네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고양대드론비행장 개장

개장일시 2021. 12. 20.(월)

규모 총 면적 6,020m²

2,400m²(120m×20m) 활주로와 드론탐지관제시설 등
 ※비행승인 및 출입허가를 받은 기용이하 드론이 최대 120m 상공까지 비행 가능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4시
 ※화수요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사실기시험장 기업 테스트비행 운영
 목금토일요일: 시민이용

이용방법 미리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고양시 통합액 등 시간대 비행 가능한 최대 드론 수는 고정이 2대, 최장이 6대로 제한
문의 관리사무소(☎ 010-7240-8075, 010-7241-8075)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천사소녀답정너 #디카페인유자차 #휘궈친구마라탕 #무채색레드벨벳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도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글. 고양시 도서관센터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 문학동네

작가는 '이것이 치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했다. 치극한 사랑은 어떤 아픔을 다루고 있을까 결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헤어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이 책을 팔펴보았다.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과 그 안의 사람들이 있다. 비극과 슬픔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작가는 이 책으로 이야기한다.

#천사소녀답정너

책 속 한 줄

"**빠른**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글수에 사무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작은 캠핑, 다녀오겠습니다



생활모험가 | 휴미니스트

캠핑은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아 캠핑 영상과 책만 기웃거리는 나에게 '작은 캠핑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작가의 손을 잡고 작은 캠핑을 떠나보았다. 캠핑에서 가장 필요한 '시에라컵'과 '랜턴, 침낭'까지 초보 캠퍼가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소개해 준다.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명의 매력까지 다양한 사진들로 구경할 수 있다. 아직은 날이 추우니 정보를 모아 두었다가 따뜻한 불이 오면 그때 꼭 떠나봐야겠다. #디카페인유자차

책 속 한 줄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버워내는 것도 필요한데, 늘 제 마음은 꽉 차 있고 분주했어요. 했던 시절을 지나 이젠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느슨하게 해둘 수 있게 되었어요. 캠핑을 시작한 덕분입니다."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자극적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재인, 재욱, 재훈



정세랑 |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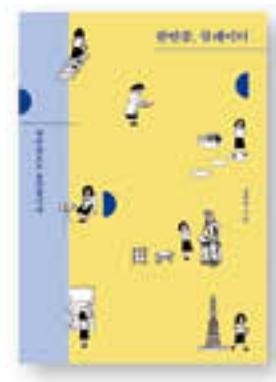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좋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 책의 세 남매는 우연한 기회로 별 희한한 초능력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런 조그만 초능력이 사람을 구하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개인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히어로들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휘궈친구마라탕

책 속 한 줄

"'게다가 어쩌면 구해지는 쪽은 구조자 쪽인지도 몰라.'"

한번쯤, 큐레이터



정명희 | 사회평론아카데미

박물관과 도서관, 큐레이터라는 단어는 묘한 동질감을 일으켰다. 이 책에는 하나의 전시를 기획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에 대해 적혀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마주해야 할 때,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일상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아도, 기까운 곳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숨 들리고, 쉴 수 있는 방법을 박물관의 전시장으로 표현한 작가. 그 말처럼 도서관도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무채색레드벨벳

책 속 한 줄

"어찌 보면 공부하는 이유뿐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도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도 비슷하다. 위대한 예술은 매번 새롭게 태어난다."

의정소식

건강상식



고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시작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과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고양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임영숙)와 본회의 인터넷 수어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회의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증계되는 '본회의 생방송'에 수어통역 화면이 제공된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여,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겉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글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회장 심홍순), 그린 뉴딜연구회(회장 박한기), 동물복지정책연구회(회장 손동숙), 도시 브랜드연구회(회장 윤용석), 문화관광 및 공간혁신연구회(회장 김 수환)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5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사, 의회 전문 의원과 집행부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5개 연구단체는 각각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했으며 선진지 간학·현장답사, 중간보고회·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수립된 의견과 우수 정책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구간조증이란?

연구간조증은 눈을 보호하고 윤행 역할을 하는 눈물의 기능장애로 나타난다. 안구간조증을 오래 방치할 경우 눈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시력 저하까지 초래한다.

증상은?

눈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간 듯한 아물감이 느껴지고 음식 연기나 바람에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등 예민한 반응이 나타난다. 또 실처럼 끈적끈적한 눈곱이 자주 생기고 따끔거림과 시림, 가려움 등의 증상도 있다.

예방법은?

-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난방기구의 열기나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때는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인다
-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 세안은 속눈썹까지 꼼꼼히 클렌징한다

원인은?

1. 거울될 건조한 실내·외 환경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각막에 직접 닿으면 이로 인한 자극으로 눈물이 증발한다.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난방기 역시 실내 습도를 낮추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안구간조증을 유발한다.

2. 스마트 기기 사용

코로나19로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 눈의 긴장이 지속되고, 눈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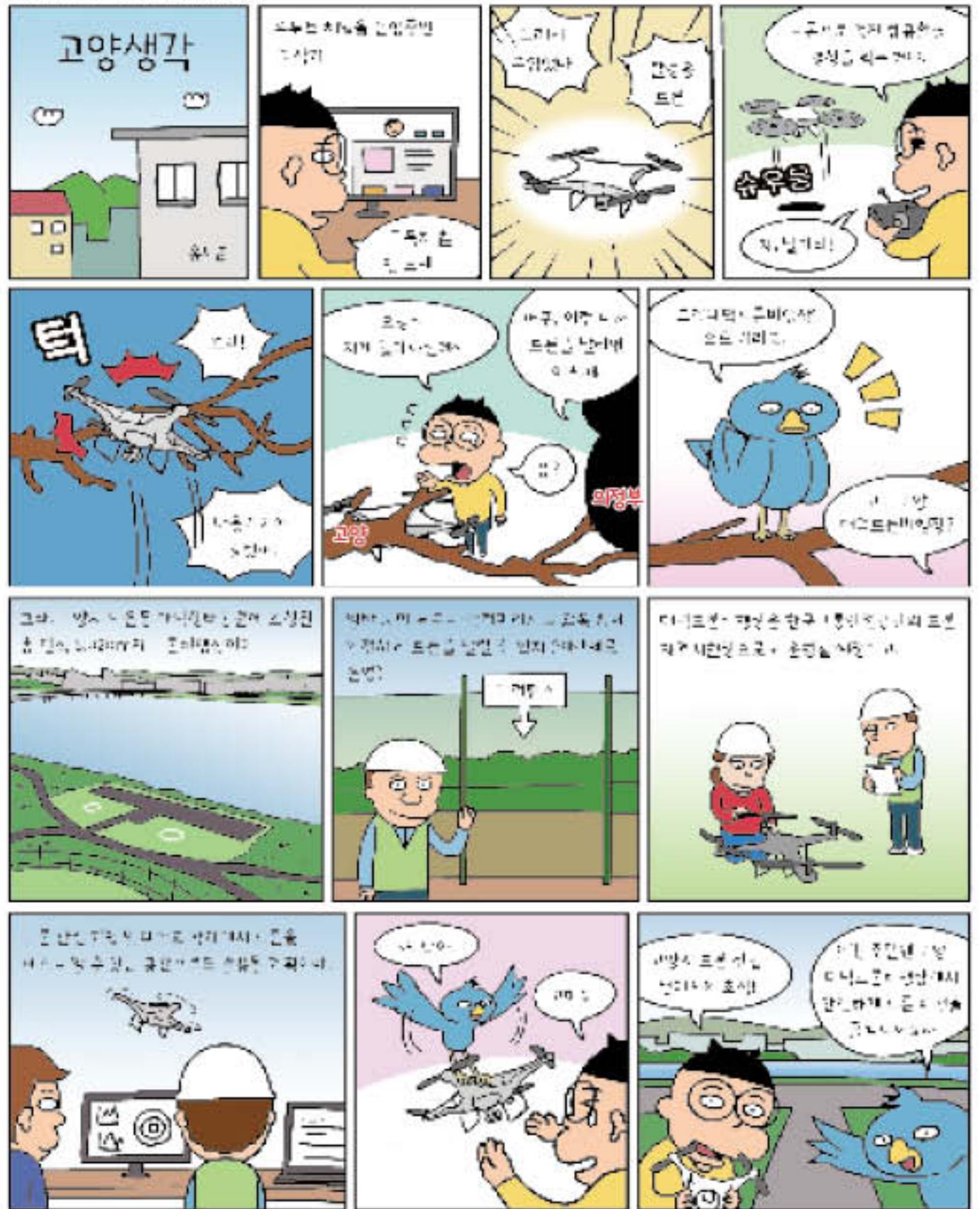
3. 화장품 등 자극성 세면용품 사용

아이섀도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안구 표면에 미세한 상처를 낸다. 또 아이라이너를 눈 점막과 가깝게 그리면 굳이 눈꺼풀 주변을 감염시키거나 눈의 기름샘을 막아 안구간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건조한 겨울로부터 눈 건강 지키는 방법

겨울이면 낮아지는 온도와 습도로 온 세상이 건조해진다.
건조한 환경으로 피부는 물론 눈까지 금세 건조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건조한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눈 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네이버 자사백과





고양시 유튜브 핫 클립(Hot Clip)

글: 고양시 영상홍보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양시와 소통하세요!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켜어보세요. 고양시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



유튜브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1

[고양브이로그 20화]

평화의 바람을 노래한다. 통일 가수 유경



#2

[고양있수多]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충전



"아직도 물라~? 버스정류장 무선충전기!"

고양시 곳곳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100개가
설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충전해보세요~!

노래면 노래! 봉사면 봉사!

지역사회를 넘어 통일을 노래하는 통일 가수 '유경'.

올해 고양시 문화예술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고 하는데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 유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에 오지 못하는 팬들을 위한

랜선 콘서트는 물론,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죠?

목소리와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통일 가수 유경의 일상을 만나보러 가봅시다!



#3

'2021 사회복지자원봉사 따뜻한

영상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우리는 신박한정리 자원봉사단입니다.



고양시의 '정리왕'들이 떴다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신박한정리 자원봉사단'은 정리수납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돋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으로 코로나19 이후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

이번달 추천 영상

나를 위한 힐링 '흔자 떠나도 좋은, 고양'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에게
힐링의 하루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양의 낮과 밤, 자연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내는 나만의 소소한 힐링 타임.

흔자 떠나도 좋은 고양시로 출발~!

[고지식콘서트 8강]

'매력 군주 정조, 그를 더 알고 싶다'



정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불행한 가정사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을 존중하고

백성과 소통하며 변화를 추구한 정조!

그의 리더쉽을 통해

현대 사회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이번 강연은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가 함께합니다~!

고양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콩드·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시작·
만화 등 제한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사진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 보내주신 작품의 오기, 비문 등을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1 2 월 호 독자 후기



김미란

휴대폰 페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 요즘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닌데
버스정류장에 무선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나 유용한 것 같습니다



변금향

주택가 주변을 지나다 보면 어렵게 쌓인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이 환경관리에 나서서 동네를 깨끗하고 신뜻하게 만들고 있어
제 마음이 다 뿐듯해지네요.

1 2 월 호 정책 퀴즈 당첨자

백승우, 이정순, 최은영, 충관중

1. '00000 00000'는 화전역 인근에 위치한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24㎡ 규모로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2. 단독빌라 00000 00000은 주택의 골목을 들어여기저기 어렵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치우고, 재활용품들은 미마자루에 담거나 정
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정답: 고양드론앵커센터 안심환경관리인



엄마와 아파트

글 박정은(일산서구)

"00 할머니! 여기 호박 좀 받아봐!"

"아니, 호박만 떨렁 두고 가시면 어떡해.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셔야지."

"아유, 암았어. 나 은행 불일 좀 보고 이따가 열무김치 담근 거 가지고 짭간 들를게. 근데 나 이
번에 양념이 좀 달게 된 거 같은데, 먹어보고 솔직히 말해줘야 해!"

저희 천정엄마께서는 아파트 1층에 사십니다. 그리고 위의 정겨운 대화는 친정집 거실에서 들
리는 저희 엄마와 이웃 친구분 간의 대화입니다.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베란다를
통해 엄마는 이렇게 이웃과 소통을 하십니다. 바깥의 소음이 집안에 들리기도 하고 집에서 하
는 말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기도 하는 1층. 인과 밖의 경계가 없는 듯한 친정집. 엄마는 뒷마
당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1층에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주택에서 사신 저희 엄마는 1년 전 가을, 갑자기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지금의 이
새로운 집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 살아오신 엄
마께서 아파트라는 낯선 주거공간에서 사실 생각을 하니 적잖이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에너지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
웃분들과 교류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1층은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나
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현관이 앞뒤로 두 군데인 것입니다. 또 베란다 앞
을 어느 정도 내 집 정원처럼 쓰게 해줘서 공동주택 안에서도 나름 주택 같은 느낌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엄마, 이게 웬 화초들이에요?"

지난 주말 찾아간 엄마네 거실에 여태껏 못 보던 큰 화초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여쭈어
보니 몇 주간 집을 비우게 되신 이웃분의 부탁으로 3일 동안 화초들을 도맡게 되셨다는 것임
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엔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며칠간 집에 와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분이 여행을 가게 되어서 맡겼다면 강아지를 안고 연신 행복해하시던 엄마의 얼굴
이 떠오르네요.

증간 소음 분쟁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내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공동주택 아파트. 참 식막하고 정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주거공간이지만,
이처럼 아파트에서도 시골집 주택처럼 사람 냄새나는 환경을 만들며 따뜻하게 살아가고 계신
엄마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삶의
환경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EVENT 1
호랑이띠, 소원을 말해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독자분들의

새해 소망, 응원의 메시지 등을 <고양소식 2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게재될 본인 사진, 메시지 내용을

고양소식 이메일(gysosic@korea.kr)로 보내주세요.

2월호에 수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1월 21일(금)까지 진행됩니다.

EVENT 2

<고양소식> 독자 만족도 조사

고양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해당 QR코드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항상

소식지 기획 및 콘텐츠 수록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만족도조사는 1월 21일(금)까지 진행됩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2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1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소지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에 COVID-19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통과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아이폰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자 증명기록 시 기관 사용자에게는 신체 및 면역 증명하기

- 면역증명 신청 → 면역증명인증번호 → 면역증명 출력 → 개인별 면역증명증명서 출력
- 면역증명인증번호 → 면역증명 출력 → 개인별 면역증명증명서 출력
- 면역증명 출력 → 면역증명인증번호 → 개인별 면역증명증명서 출력

2 편리하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수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장비 예방접종증명서

작은 헤드폰으로 접수하세요!

- 헤드폰으로 접수하세요
<https://m.vaccine.go.kr> 또는
△ 휴대폰 누리집
<https://www.vaccine.go.kr> 접수 가능

안전하게 접수하세요!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 사군구 보건소에서도 접수



작은 헤드폰이나 휴대폰
으로 접수하세요
작은 헤드폰으로
접수하세요



- ①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군구 보건소
작은 헤드폰으로 접수하세요
- ②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군구 보건소
작은 헤드폰으로 접수하세요

* 접수처 접수하는 경우 접수처에 고려를 해주세요